

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 현안 청신호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사업 대거 담겨 가속도 기대
‘강호축’ 반영 호남선 2단계 등 SOC 지원 눈길

전남도가 주도하는 미래형신산업 및 글로벌 섬, 해양관광 중심지 사업 등 남해안시대 비전이 2020년부터 20년간 추진되는 국토종합계획에 담기지면서 민선7기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강원-충청-호남 ‘강호축’이 반영돼 호남선 2단계, 전라선 복선화, 광주-완도 2단계 등 전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챙기고 있는 미래 신산업, 관광중심지 육성 등 블루이코노미 관련 사업의 국토계획 대거 반영으로 인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형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한전공대 중심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물·의약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우주항공·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e-모빌리티산업 육성,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주력과제로 추진된다.

관광분야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관벨트를 통해 섬·해양관광중심지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남해안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농수산분야에서는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로 인해 미래 생명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더불어 도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일명 ‘강호축’ 관련 산업 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사업은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 8개 시·도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호축’ 관련 도는 호남선 2단계(고막원-목포) 동시 착공, 전라선 복선화, 광주-완도 2단계 조기 착공 등을 정부에 우선 요청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임채만기자
/김다이기자



‘보안사 생산 5·18사진첩’ 설명회

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열린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이성춘 5·18기념재단 자문위원이 보안사령부가 보관해 온 사진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공개 사진첩 추가 존재…정부가 나서야”

“전두환 보고용·민주화운동 폭동 규정 연루자 처벌 자료” 주장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 보안사령부 생산 5·18 사진첩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보고용’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5·18사진첩 17권 중 13권 외 1-4권의 사진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앞장서 도와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안신당 등은 3일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광주의 눈물, 그날의 참상’이라는 주제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길정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 표제와 목차 하단에 ‘증거자료’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사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수집·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첩 7권에 당시 5·18 사건을 맡은 재판부 현황과 형량별 처벌자 수 등이 포함된 것을 놓고 “사진첩은 재판의 물증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은 “시위의 과격성을 강조하고 계엄군 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진들과 설명이 쓰여있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마치 발을 받는 듯한 사진 등 일부는 군이 연출한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첩은 5권-17권으로 나머지 1-4권을 포함해 18권 이상의 사진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춘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엔 연필로 ‘3-33’ 등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는 3권 33쪽에 있는 사진과 연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메모

에 주로 언급된 3-4권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진첩 5권에는 1982년 방산물자 납품 실적이 나오는데 이는 5·18 이후에도 사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관리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17권 이상의 사진첩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사진첩을 제작한 당사자와 분실했다고 판단되는 사진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행방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지원·최경환·전정배·장병완 의원 등 대안신당 의원들은 “조만간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설득하고 추궁해서 1-4권에 대한 역사적 검증 자료를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대입 성패 수학·국어가 가른다

올 수능 수학 나형 11년만에 최고 난도…국어도 역대 2번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학 나형이 매우 어렵고, 국어도 난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가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로웠고, 영어는 작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4일 치러졌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은 4일 배부된다.

▶관련기사 7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0점,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은 134점, 인문사회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주로 치는 수학 나형은 149점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 가형은 133점, 수학 나형은 13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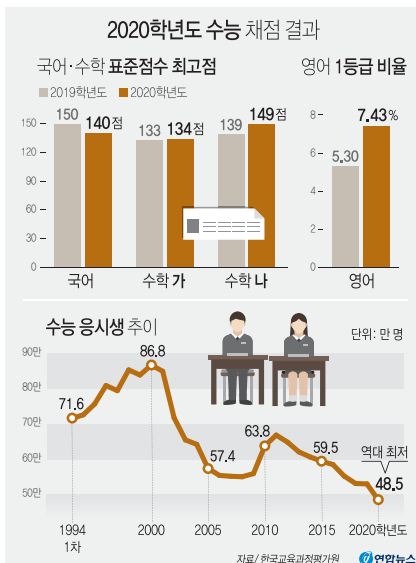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즉 2020학년도 수능은 전년도보다 국어영역은 쉬웠고, 수학 가형은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수학 나형은 어려웠다는 뜻이다. 특히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2009학년도 수능(158점) 이후로 치러진 11번의 수능 중 가장 높았다. 2010-2019학년도에는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대 초반-140점대 중반 수준이었다.

국어영역도 현 수능 제도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2009-2011학년도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140점)과 같았다.

영역별 1등급 컷라인(컷)은 국어영역 131점, 수학 가형 128점, 수학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어영역 1등급 컷이 132점, 수학 가형이 126점, 수학 나형이 13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어는 1점 떨어지고 수학은 가형이 2점, 나형이 5점 올랐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 비율의 경우 국어영역은 0.16%로 지난해 수능(0.03



%)보다 늘었다. 그러나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 비율은 2018학년도(0.61%)나 2017학년도(0.23%)보다는 적었다.

수학 가형은 0.58%, 나형은 0.21%로 지난해 수능(가형 0.39%, 나형 0.24%)보다 가형은 늘고 나형은 줄었다.

수학 나형 만점자 비율은 현 수능 제도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4번째로 낮아, 까다로웠던 난도를 입증했다.

절대평가여서 등급만 나오는 영어영역은 1등급 학생 비율이 7.43%(3만5천796명)였다. 2019학년도 수능(5.30%)보다 소폭 늘어났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은 1등급 비율이 20.32%(9만8천490명)였다.

탐구영역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는 경제가 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이 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시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의 성패는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문과생 변별력은 수학에서, 이과생 변별력은 국어에서 크게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자는 48만4천737명이었다. 재학생은 34만7천765명(71.7%), 졸업생은 13만6천972명(28.3%)이었다. 수능 응시자가 50만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현장 토론회」

2019년 12월 4일 (수), 13:30 | 대구광역시청 10층 대회의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기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 원우를 모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전남 동부권 최고 경영자 클럽은?

창조·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 에듀솔빙 워크숍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모집인원** 100명내외
- 교육기간** 2020년 1월14일(화) 개강 ~ 6월16일(화) 종강 (1년 과정, 연 12회 강좌)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호텔식사 제공)
- 강의장소** 여수 히든베이호텔
- 수 강 료** 280만원(부가세포함),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 2019년 12월말
- 발표및등록**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010-8785-8151
- 접수방법** 서류전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추후 원우회 수첩제작시 반영되므로 명확히 기재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메 일 cukbdb@naver.com **팩 스** 062) 650-2019
주 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구동 1-21)